

Difference in Immigrant Adolescents' Experience of Life in Korea

-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s and those with immigrant backgrounds -

Hyoung-Ha Lee*

Abstract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difference in experience of life in Korea among adolescents whose immigrant backgrounds were different (Korean-bor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born immigrant children) using the data of the 2012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 children aged between 9 and 24).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experienced 'difficulty in using the Korean language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chool dropout,' and 'school violence' more frequently than Korean-born multicultural adolescents. Second, with regard to social discrimination (friends, teachers, relatives, neighbors, and unknown people),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experienced 'discrimination by teachers,' 'discrimination by relatives,' 'discrimination by neighbors,' and 'discrimination by unknown people' more frequently than Korean-born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analyzing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differentiated support policies and specific strategies for adjustment to life in Korea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 Keyword :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multicultural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Korean-born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of life in Korea

I. Introduction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단초는 우선 결혼이민자의 증대로 인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일 것이다. 2014년 기준 다문화가족은 79만명(결혼이민자 및 인자귀화자 295천명, 배우자 295천명, 자녀 20만명) 내외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 학생수 감소 현상(2010년 7,236,248명에서 2014년 6,333,617명)과는 달리, 큰 폭으로 증가(2010년 31,788명에서 2014년 67,806명)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주배경에 따른 유형에는 한국출생 학생이 57,498명(초등학교 41,575명, 중학교 10,325명, 고등학교 5,598명),

중도입국 학생이 5,602명(초등학교 3,268명, 중학교 1,389명, 고등학교 945명), 외국인 자녀 4,706명(초등학교 3,454명, 중학교 811명, 고등학교 441명)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학생수의 증가는 2000년대 초기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실태 파악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3],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후 학문적 관심으로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 적응실태[4, 5, 6, 7, 8, 9, 10]와 학교생활실태[11, 12, 13, 14], 학업과 진로에 관한 연구[15, 16]가 수행되어 왔다.

• First Author: Hyoung-Ha Lee, Corresponding Author: Hyoung-Ha Lee
*Hyoung-Ha Lee (hhlee62@kwu.ac.kr),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 Received: 2015. 06. 10, Revised: 2015. 06. 26, Accepted: 2015. 07. 0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wangju Women's Univ. Research Grant in 2015(kwu15-16).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양한 이주배경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한국생활 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점을 규명하기 보다는, 주로 한국출생의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연구[14, 17, 18]하거나, 중도입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6, 14, 15, 19]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에는 초혼가정의 자녀, 이혼가정의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들로 범주화할 수 있다. 초혼가정은 한국출신 부와 외국출신 모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고, 이혼가정은 외국출신 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재혼가정은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나 외국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과 맞물려 이들 청소년들의 학업 및 다양한 형태의 부적응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지원과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기초로 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경험에 구체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경험의 영역을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적 차별, 학교폭력 등의 어느 한 영역만을 다루고 있어, 다차원적인 경험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 조사(만 9세부터 24세 청소년자녀)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주배경이 서로 다른 청소년들(한국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출생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생활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규명을 통해 이주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Multicultural Youth categories and Status

다문화 가정 자녀의 유형도 다양해 지고 있다(Table 1. 참조). 이 가운데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출신국 현지 남성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동반(또는 추후) 입국한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출신국에서 출생한 후 입국한 자녀 등을 지칭한다 [15, 19, 20].

Table 1. Type of Multicultural Families

가정 유형		자녀 유형
국제결혼가정	초혼가정	한국출신 모 + 외국출신父의 자녀 하눅출신 父 + 외국출신 母의 자녀
	이혼가정	외국출신 母 홀로 자녀를 양육
	재혼가정	전처 소생의 한국출신 자녀 외국 출생 후 한국에 입국(귀화)한 자녀('중도입국 자녀')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외국 출생 자녀 한국 출생 자녀(무국적 자녀)
	난민 가정	난민 가정 자녀

한편, 우리나라 일반 학령인구(초·중·고)는 매년 감소(약 20만명)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약 8천~10천명) 추세에 있어, 2014년 다문화 학생이 전체 초·중·고 학생의 1%를 넘어어서고 있다[21]. 이러한 다문화 학생 수의 증가와 맞물려 학업중단율도 상급 학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Table 2., Table 3. 참조).

Table 2. The Growth Trend of Multicultural Student (last 5 years)

(단위 : 명)

인원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Table 3. The Discontinuation Rates of Multicultural Student(last 2 years)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13년도 ('12.3 ~ '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률(%)	0.8	1.2	2.1	1.0
'14년도 ('13.3 ~ '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률(%)	0.8	1.2	2.1	1.0

중도입국 청소년은 2014년 기준 6,602명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5). 전체 한국출생 다문화 학생(2014년)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재학생이 16.9%로 가장 높게 분포되어 있다(Table 4. 참조).

Table 4. Multicultural Student Status with immigrant backgrounds(2014)

(단위 : 명)

구분	2014년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A)	41,575	10,325	5,598	57,498
중도입국 (B)	3,268	1,389	945	5,602
외국인자녀	3,454	811	441	4,706
계	48,297	12,525	6,984	67,806
중도입국비율 (A/B)	7.8	13.5	16.9	9.7

2. Youth'sf Korea Life experience along the migration background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와 맞물려 이주아동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들 아동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시작되고, 점차 이들 아동이 성장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논의의 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가족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의 적응과 대처는 일반적으로 가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학교생활 영역으로 확대되지만,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은 이에 더해 '차별 경험'과 '또래 수용'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 '정체성 혼란' 등의 증첩된 어려움이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 경험한 한국생활은 이주배경에 따라 몇 가지 차이점을 나타낸다.

첫째, 한국출생의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적과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양육 태도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가 겪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즉, 부모들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외국인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에 따른 사고방식의 차이 등으로 정체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학생들에 비해 언어, 문화, 가치관, 외모 등의 차이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 놀림, 차별, 따돌림 등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혼돈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22]. 또한, 중도입국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여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은 커졌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일 경우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개인적 특성 중 일부가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따돌림의 경험은 이들의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별과 따돌림의 경험이 있더라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다면 학교부적응의 가능성은 낮아져 교사와의 정적 관계가 사회적 배제경험에 의한 학교부적응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3].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 경험, 교육적 공백, 가정의 불안, 방임과 방치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19].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 가운데 겪게 되는 가정의 해체, 별거, 재결합, 타국으로의 이주 과정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불안과 위기 경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거나 극복의 계기를 갖지 못하여 자아정체성 위기까지 겪고 있는 실정이다[19]. 특히 한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는 점, 바로 입학하기에는 한국어 사용, 교육내용, 학교규칙, 문화 등의 차이로 학교 적응의 어려움이 겪는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하나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다수가 만 17세 이상 후기 청소년이며, 중학교 학령기 중도입국 자녀들도 지속적으로 입국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4].

셋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주 후 문화충격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반면[10],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언어 문제는 없지만 다른 피부색으로 인해 배척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다문화 발생 배경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25].

III. Research Method

1.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본 연구는 여성가족부의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청소년(9~24세) 데이터를 자료원으로 활용하였다[26]. 2012년 실태조사에서 처음 조사가 이루어지는 만 9~24세 청소년 자녀의 조사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사회생활, 진로 및 교육지원, 외국 성장 자녀, 경제활동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실태조사에 응답한 다문화가족 자녀는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동거하는 자녀 중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이다. 본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 가족 자녀는 총 4,775명이었으며, 가중치를 적용(66,536명)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31일이었다.

2. Measuring Tools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변수로는 '한국어 사용능력', '사회적 차별경험', '학업중단 여부', '가족관계 만족',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 혹은 모에 대한 자긍심', '학교폭력 경험 여부', '시설 이용경험' '교육지원 필요도' 등이다.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Table 5. 참조).

Table 5. The Main Measure Items

구분	문항	척도
한국어 사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5점 척도
사회적 차별 경험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	4점 척도
학업중단 여부	재학(휴학) 여부	다님, 그만 둠(졸업 제외)
가족관계 만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관계	5점 척도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정도	5점 척도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나 모에 대한 자긍심	부모님 한 사람이 외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긍심	5점 척도
학교폭력 경험 여부	학교 폭력을 당한 경험	없다. 있다.
시설 이용 경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알고 있어 이용한 경험이 있다. 알고 있지만 이용한 경험이 없다.
교육지원 필요도	한국어 교육 등	5점 척도

Table 6.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단위: %, 명)

구분	한국출생	중도입국	전체
전체	73.1 (48,635)	26.9 (17,902)	100.0 (66,636)
성별	남자	12.9 (8,558)	50.9 (33,882)
	여자	14.0 (9,344)	49.1 (32,655)
연령대	9 ~ 11세	2.7 (1,775)	27.9 (18,548)
	12 ~ 14세	2.8 (1,879)	22.0 (14,615)
	15 ~ 17세	3.0 (1,994)	15.7 (10,478)
	18세 이상	18.4 (12,253)	34.4 (22,894)
학교 재학	초, 중, 고 재학	8.8 (5,864)	67.2 (44,693)
	대학교, 대학원 재학	3.4 (2,262)	11.5 (7,638)
	학교를 다니지 않음	0.5 (334)	1.5 (1,029)
	졸업	14.2 (9,442)	19.8 (13,177)
재학 중 학교폭력 경험	있다	1.4 (610)	8.7 (3,903)
	없다	11.8 (5,254)	91.3 (44,693)

IV. Results of the study

1. Characteristics of the main variables of the study subjects

연구대상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6. 참조).

응답자의 성별 분석결과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73.1%(48,636명),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26.9%(17,902명)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50.9%(33,882명), 여자 49.1%(32,656명)이었다. 연령대는 9~11세 27.9%(18,548명), 12~14세 22.0%(14,615명), 16~17세 16.7%(10,478명), 18세 이상 34.4%(22,894명)로 18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재학에서는 초등·중학·고교 재학 67.2%(44,693명), 대학교·대학원 재학 11.6%(7,638명), 학교를 다니지 않음 21.3%(10,299명), 졸업 19.8%(13,177명)로 초등·중학·고교 재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 재학 중 학교폭력 경험은 ‘있다’ 8.7%(3,903명), ‘없다’ 91.3%(44,693명)로 나타났다. 재학 중 학교폭력 경험은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7.4%(3,293명)로 높게 나타났다.

2. Youth’s Korea Life experience gap analysis of migrant background

2-1. Using Korean

상이한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7. 참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한국어 사용의 ‘말하기’(t=81.60, p<.001), ‘듣기’(t=78.62, p<.001), ‘읽기’(t=81.87, p<.001), ‘쓰기’(t=81.72, p<.001)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분석되었다.

Table 7.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Use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입국 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값
말하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4.76	.619	81.50***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3.99	1.209	
듣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4.77	.602	78.62***
	중도입국	17902	4.05	1.180	

	다문화 청소년				
읽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4.76	.625	81.8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3.94	1.284	
쓰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4.69	.714	81.72***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3.85	1.308	

p<.001***

2-2. Social discrimination

상이한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8. 참조). ‘친구차별’(t=9.07, p<.001)에서만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다소 높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선생님 차별’(t=-2.83, p<.01), ‘친척 차별’(t=-7.90, p<.001), ‘이웃 차별’(t=-20.84, p<.001), ‘모르는 사람 차별’(t=-29.47, p<.001)의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 The Difference between Social Discrimination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입국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친구 차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5332	3.23	.902	9.0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835	3.05	.991	
선생님 차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5332	2.37	.674	-2.83**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2189	2.42	.736	
친척 차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5307	2.26	.583	-7.90***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598	2.36	.647	
이웃 차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5332	2.35	.639	-20.84***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835	2.69	.837	
모르는 사람 차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5332	2.43	.768	-29.4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835	3.01	1.021	

p<.01**, p<.001***

2-3. Whether academic interruption

상이한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9. 참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1.9%,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1.4%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9. The Difference between School Dropout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입국 여부	N	%	p
학업 중단 여부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695	1.4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334	1.9	

p<.001***

2-4.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상이한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관계 만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0. 참조).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t=13.01, p<.001)에서만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다소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즉,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아버지는 친부가 아닌 관계로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만족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t=-40.02, p<.001),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t=-5.59, p<.001)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관계 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10. The Difference betwee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입국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아버지 와의 관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029	4.04	1.012	13.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417	3.91	1.189	
어머니 와의 관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577	4.15	.989	-40.02***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889	4.44	.784	
형제 자매 와의 관계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2235	4.06	.964	-5.5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0363	4.13	1.001	

p<.001***

2-5. Concerns about the country's oreign-born parents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1. 참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t=-41.41, p<.001)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were Born in a Foreign Country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 입국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값
1)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3.32	1.168	-41.4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3.73	1.090	

1)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
p<.001***

2-6. Father or mother born in a foreign country for Pride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2. 참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에 대한 자긍심'(t=-18.49, p<.001)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12. The Difference between Pride for his Father or Mother born abroad with Immigrant Backgrounds

	중도 입국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값
1)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3.28	1.039	-18.4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3.44	.958	

1)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에 대한 자긍심
p<.001***

2-7. School violence experienced during the past year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지난 1년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3. 참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8.5%,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10.4%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13. The Differenc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d over the past year

	중도 입국 여부	N	%	p
학교폭력 경험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3293	8.5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610	10.4	

p<.001***

2-8. Facilities experience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시설이용 경험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4. 참조). '고용센터 이용' 경험에서만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6.3%로 분석되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이용경험 2.4%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4. The Difference of the Facilities Experienced

	중도 입국 여부	N	%	p
다문화센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7288	15.0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2473	13.8	
방과후교실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2929	6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4869	27.2	
지역 아동 센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1197	24.6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42	9.7	
청소년상담 센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3018	6.2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680	3.8	
고용 센터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1178	2.4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119	6.3	
사회 복지관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451	9.2	<.0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488	8.3	

p<.001***

2-9. The need for training support

이주배경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지원 필요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Table 15. 참조). '한국어 교육'(t=-71.01, p<.001), '적응교육'(t=-67.76, p<.001), '진로교육'(t=-2.82, p<.001), '학습상담'(t=-2.06, p<.001), '직업훈련'(t=-44.59, p<.001), '일자리 소개'(t=-53.17, p<.001) 영역에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교육지원 필요도를 나타냈다. 즉,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교육과 학습상담 및 적응교육,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및 일자리 소개에 대한 높은 필요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 '외국부모 언어교육'(t=21.99, p<.001), '외국부모 문화이해'(t=25.21, p<.001), '학습지원'(t=8.67, p<.001)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교육지원 필요도를 나타냈다.

Table 15. The Difference of the Educational Needs

	중도 입국 여부	N	평균	표준 편차	t값
한국어 교육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1.79	1.281	-71.0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2.78	1.653	
외국 부모 언어 교육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2.71	1.442	21.9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2.42	1.532	
적응 교육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1.99	1.320	-67.76***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2.86	1.528	
외국 부모 문화 이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2.65	1.398	25.21***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2.34	1.436	
학습 지원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48635	3.06	1.555	8.6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7902	2.93	1.655	
진로 교육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27759	3.24	1.542	-2.82***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5486	3.28	1.649	
학습 상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27759	2.66	1.424	-2.06***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5486	2.69	1.486	
직업 훈련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27759	2.87	1.561	-44.59***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5486	3.57	1.556	
일자리 소개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	27759	2.80	1.618	-53.17***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15486	3.65	1.563	

p<.00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청소년(9~24세) 데이터를 자료원으로 활용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외국에서 출생하여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사회 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선행연구들이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이를 규명하는데 일정한 제한점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 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는지, 그렇다면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유에서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외국출생 부 혹은 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생겨나는 교육적 공백, 방임과 방치 등의 요인과 입국 이후에도 문화, 외모 등의 차이로 인해, '한국어 사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업중단', '학교폭력 경험'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 차별(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에 있어서도, '친구차별'을 제외한 선생님 차별, 친척 차별, 이웃 차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 영역에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 영역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에서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아버지와'의 관계 만

족'을 제외한 '어머니'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비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넷째,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에 있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출생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관심과 자긍심을 나타냈다.

다섯째,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한 경험에 있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이 '고용센터 이용경험'을 제외한 '다문화 센터',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이주배경의 청소년의 교육지원 필요도의 경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은 주로 '초기 적응'과 '진로와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인 '적응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소개'에 더 높은 교육지원 필요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주로 중학교 학령기 전후의 시기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학습역량의 기초가 되는 한국어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학습상담이 병행되어야 적응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한국 학생과의 또래관계 형성 방법 등을 경험하게 하고, 다양한 청소년 이용시설을 안내하고 이용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과 신고체계에 대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중 '친구차별'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내국인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학교내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에 의한 차별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야 내국인 학생들도 이주배경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학교공동체 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넷째, 이주배경 청소년이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여, 이중언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이주배경 전의 사회문화적인 학습과 교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27].

다섯째,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있어,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와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취업으로 연결되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생활의 경험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첫째, 내국인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의 비교를 통해 한국생활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이주배경 다문화 청소년의 국적에 따른 한국생활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하였고, 외국출생 부모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tatistic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Nov. 2014.
- [2] Ministry of Education, Status of Multicultural Students(2014), Apr. 2014.
- [3] D. H. Seol, et al., International Marriage Survey & Policy Support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ct. 2005.
- [4] H. J. Kim, and K. T. Park,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Need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Youth : A Comparative Analysis with Normal Family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9, No. 1, pp. 93-128, Dec. 2010.
- [5] K. S. Jun, and M. K. Song, "A Research on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1, pp. 305-330, Nov. 2011.
- [6] J. B. Lee, et al., Pilot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of an Early School Adaption Program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Apr. 2011.
- [7] S. J. Jung, and J. S. Kim,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and program satisfaction in the Community Children Center on soci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8, pp. 77-102, Aug. 2012.
- [8] E. K. Seo, and B. S. Kim, "Social Adjustm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Effects in Source of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1, No. 2, pp. 449-476, Nov. 2013.
- [9] M. Y. Um, "Descriptive Qualitativ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Rejoin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42, pp. 39-82, Dec. 2013.
- [10] S. G. Kim, "The Psycho-social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3, pp. 247-272, Mar. 2011.
- [11] C. W. Choi, and H. Y. Jo, "A Study on Activating Youth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Cases of Youth Policy Participation Committees", Vol. 14, No. 6, pp. 203-227, Dec. 2007.
- [12] S. K. Lim, Multicultural Youth-ended research and policy Study :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Youth,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c. 2013.
- [13] H. M. Kim, and H. J. Moon, "School Adjustment: Compa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5, No. 4, pp. 7-31, Feb. 2013.
- [14] B. C. Lee, and D. Y. So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4, pp. 131-154, Feb. 2011.
- [15] S. B. Oh, and D. H. Seo, "An investigation into the condition of Immigrant youth's career consciousn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social support",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 60, No. 2, pp. 517-552, Jun. 2012.
- [16] I. S. Jang, and H. J. Kim, "Academic Performance and Career Support System of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Minjok Yeonku*, Vol. 60, pp. 50-67, Nov. 2014.
- [17] S. H. Park, W. T. Cho, and J. H. Lee, "A Study of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7, pp. 53-76, Dec. 2008.
- [18] D. H. Jang, and H. S. Shin, "The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3, pp. 123-147, May. 2010.
- [19] B. R. Ryu, et al., A Study on Educational Support for Immigrant Youth, Korean Women's Institute, Dec. 2011.
- [2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Student Status of Multicultural Home, 2010. 7.
- [21] Ministry of Education, 2014 Multicultural Student Status, Mar. 2015.
- [22] H. Seo, and S. E. Lee,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in Agricultural Region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2, No. 4, pp. 25-47, Aug. 2007.
- [23] Y. S. Lee, and H. S. Kim,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Maladjustment among Immigrant Children and Youth: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from Teachers",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Vol. 29, pp. 263-282, Dec. 2014.

- [24] K. M. Yang, Longitudinal study II of Multicultural Family on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ec. 2011.
- [25] E. M. Park, "A Qualitative Research into the Life Experience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Youth: A Focus on the Rura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0, No. 3, pp. 1-21, Sep. 2013.
- [26]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Apr. 2013.
- [27] M. G. Jeong, "Multicultural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or the Multicultural Children's Cognitive Abilities and Autonomy about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8, No. 12, pp. 189-196, Dec. 2013

Authors



Hyoung Ha Lee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from Dongshin University, Korea, in 2004

Dr. Lee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in 2004.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law, and multicultural social welfare.